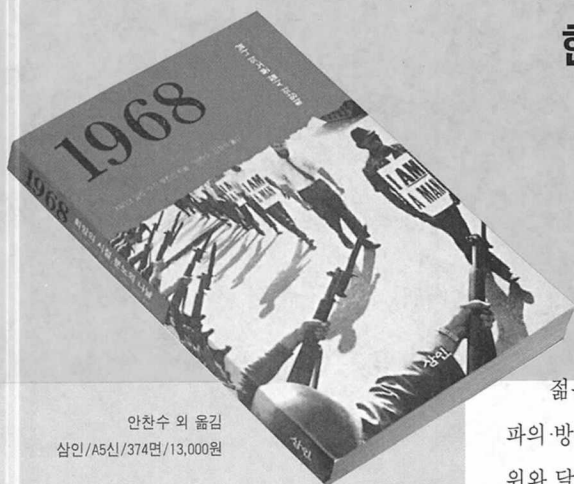


## 현대자본주의 폐해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진원지

타리크 알리 외의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을 읽고

윤수종 |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안찬수의 옮김  
삼인/A5신/374면/13,000원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나날》(삼인)은 1968년의 사건들을 서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룬 책들과는 달리, 제2세계와 제3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또한 각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면서 사진과 문건, 증언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 당시의 정황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연대기식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며, 68혁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워낙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언급 없이 68년에 대한 이미지를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적인 신문에서 만드는 상황에서는 참고할 만한 책이다.

### '신좌파'라 명명된 새로운 운동세대의 출현

1968년에는 베트남에서 미국의 패배가 눈에 보이게 된 구정(舊正) 공세가 있었고, 러시아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 있던 가운데, 프랑스의 5월 혁명이 불붙었다. 베트남 인민의 승리는 미국 패권체제의 균열을 가져 왔고,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은 소련에 기반한 '전통적 좌파' 또는 '구좌파'의 정치적 영향을 더욱 줄여 버렸다. 이를 통해 양자로부터 독립된 정치적 사상과 운동의 공간이 열렸다. '신좌파'로 불리는 새로운 운동세대가 출현해 기존의 운동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회를 움직여 나가게 된 것이다.

신좌파는 서구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공산당, 노조 등 전통적인 좌파의 의회적·조

합적 운동에 반대한 급진적 학생들과 젊은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좌파의 방식, 즉 압력적 조직투쟁이나 캠페인적 시위와 달리 반란적인 직접행동이라는 새로운 저항운동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 직접행동은 수많은 학생대중을 시위 대열에 가담시키고 고등학생, 노동자, 일부 시민들까지 합세시켜, 가두시위로부터 공장점거 및 직접적인 통제, 바리케이드 투쟁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있는 개인의 소외, 즉 대학의 강의실, 군대, 작업장 등 모든 곳에서 개인이 하나의 수동적인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기계부품처럼 획일화·표준화되는 데 대해 '항의' 했다. 또한 이런 개인의 소외가 갖가지 상품, 선거, 그리고 여타 소비생활의 즐거움 사이의 '선택의 자유'로 조작되고 은폐되는 것을 거부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조직해 나갔다. 학교, 작업장, 각종의 공동체에서, 스스로가 결정하며 추진해 나가는 자율적인 행동위원회를 결성했다. 자주관리라는 원리를 제기하고, 위계적 조직에 대해 새로운 사회상을 그렸던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프랑스, 영국, 서독, 이탈리아, 미국, 체코, 멕시코,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제2세계와 제3세계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인 지배체제에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저항했다. 서구에서 1968년의 경험은 그 이후 다양한 운동이 나타나는 계기가 됐고, 제2세계와 제3세계에서는 독재권력을 서서히 침식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각국 독재자의 몰락은 이런 운동 흐름의 최종적 결과였다.

68혁명의 반자본주의적 잠재력은 이후 운동과정에서 더욱 평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즉 여성해방운동, 성적 소수자운동, 반핵운동, 지역운동 등으로 표출됐다. 또 세입자, 죄수, (정신병)환자, 군인, 법률가, 교원, 의료노동자, 언론인의 운동도 전개됐다.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은 다양한 주체성을 확인하고 그 주체들의 자기확인(정체성) 위에서 기존의 위계화된 사회의 수평적 칸막이와 수직적 차별을 깨나가려 했다. 이런 운동은 이전보다 더욱 확장된 반자본주의적 힘과 지형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68혁명의 반란적인 직접행동의 전통은 노동운동에서도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왔다.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 일할 수 있는 권리 및 제반 민주적 요구 등 투쟁 내용뿐 아니라 투쟁 형태에서도 각종 요인의 납치, 지역 TV방송국 점거, 공장점거와 직접관리 등 기존 체제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행동방식을 보여줬다.

### 68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

68혁명은 33년 전에 끝났지만, 이후 세계를 움직이는 준거가 돼 왔다. 저항하는 대중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됐다. 이후의 전진적 운동은 자기의식(정체성)에 기반해 새로운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향하고 있다. 더 이상 집중화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분산화를 통해 자율적인 미시코문들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말이다. 이런 방향은 동시에 레닌적인 민주집중제를 넘어서 색다른 코뮤니즘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이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68년을, 68혁명을 전유하는 가장 민주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